

제14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일 시 : 단기4286(1953)년 2월 13일 오전 11시 10분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 1) 참석의원:17명
유정두, 이소규, 이복주, 명남철, 김삼성, 김남진, 진복춘, 임일남, 김경현, 김팔용, 정응표, 김길환, 김경희, 박찬규, 김자홍, 오세일, 김영완 의원
 - 2) 불참의원:4명
이재홍, 문택호, 이문길, 김채용 의원
 - 3) 참석한 자치단체의 직원
하동현 시장, 안경호 부시장, 차영균 재무과, 박연태 산업과장
남기인 건설과장, 양회경 공보계장
4. 의사일정:
 - 1) 개 회 식
5. 보고사항:
 - 1) 제13회 임시회의 회의록
 - 2) 제5, 6차 산업위원회 회의록
 - 3) 동목포역 설치 추진공사 상황보고
6. 부의사항:
 - 1) 시영 도매시장 개설의 건
 - 2) 예산 초과금 지불의 건
7. 개의선언: 유정두 의장(오전 11시 10분)
 - 1) 개회식 절차
 - (1) 국민의례
 - (2) 의장인사
 - (3) 폐 회 식

◇서기 박 찬 대

- 제13회 임시의회 회의록 낭독

◇의장 유 정 두

- 낭독한 회의록 이의없으면 통과하겠음

◇서기 박 찬 대

- 제5, 6차 산업위원회 회의록 낭독

- 이소규, 오세일 의원 참석

(오전 11시 25분)

◇의장 유 정 두

- 시장님으로부터 동목포역 설치 추진공사 상황보고가 있겠음
- 며칠전 중고등학생의 근로동원을 해보았으나 예정대로 되지 않아서 금반방공단에 청부시켰으며, 이달 18일부터 공사를 착공기로 되었다.

◇건설과장 남 기 인

- 신임 인사가 있었음

8. 토의사항

◎ 시영 도매시장 개설의 건

◇의장 유 정 두

- 본 건 계약서의 가 조항을 신중 검토하여 토의해 주기 바람

◇진 복 춘 의원

- 시영 도매시장을 목포 청과물주식회사에 대행시킬 것을 동의(재청)

◇이 소 규 의원

- 대행하는데 반대는 않으나 가결하기 전에 각 조항에 대한 토론을 하자.

◇김 삼 성 의원

- 제5조 인건비에 대하여 제8조를 보면 계약년수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물가변동이 극심한 때에 있어서 2년이라면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 지금은 50 만을 주지만 물가지수가 높아지면 백만원을 주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제 12조를 보면 배상 관계가 있고 아직까지 회사 자체가 불안정하니 제8조의 계약년수를 1개년으로 할 것을 동의하다.

◇김 영 완 의원

- 상인에게는 어디까지나 자유 분위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하며, 수수료에 있어서도 상적 행위로 이익만 좇을 것이 아니라 적은 수수료로서 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할 것이며, 기간에 있어서도 나로서는 1년 보다도 2년, 2년 보다도 3년, 4년을 주장하고 싶다.

◇의장 유 정 두

- 김삼성 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없으므로 동의가 성립 안됐음

◎ 계약서 제5조의 인건비 및 수수료 비율에 대하여 토론 20분간 계속 (속기록 참조)

◇김 남 진 의원

- 50일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수속 완료하도록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대행 체결할 것을 의원의 동의에 첨가

◇김 영 완 의원

- 춘궁기를 앞두고 긴박한 식량사정에 비추어 방념할 수 없다.
- 현 배급상황을 보건대 배급의 적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반 세공민 배급에 있어 영해동에서도 내가 19반에 사는데 19반에 살지 않는 사람이 적혀 있으며, 원주민은 아사지경에 있는데 피난민 중에는 구호 양곡을 수배하여 파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는 구호 물자이기 때문에 잘 산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점을 초월해서 할 것이며, 춘궁기를 앞두고 아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위원회에 일임해서 시, 동, 동유지를 망라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동의(재청)

◇김 삼 성 의원

- 실태는 출신구 의원들이 잘 알 것이니 전 의원을 망라해서 자기 출신 동을 담당할 것을 김영완 의원의 동의에 첨가

◇시장 하 동 현

- 양곡 배급에 있어서는 앞으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려 하는데 일정한 규격을 정하여 그 규격 범위내의 해당자만 줄 것이며, 시와 경찰이 합동하여 정확한 조사를 한 후에 통장제로 실시하려고 한다.

◇이 소 규 의원

- 한번 통장을 가진 사람은 생활정도에 변동이 있어 여유가 있어도 언제나 수배할 수 있지 않는가?

◇시장 하 동 현

- 통장제를 실시하면 수배시마다 반장, 동장인을 받게 되니 생활 정도가 나아지면 인을 찍지 않을 것이다.

◇임 일 남 의원

- 반장에게 일임해서 배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반장은 잡부금을 받으려고 모순된 배급할당을 하고 있으며, 모인이 구호양곡 5인분을 줄테니 30만을 주라는 브로카도 있으니 이 점도 조사해야 된다.(본인을 대주라 하면 대주겠다.)

◇김 영 완 의원

- 조사하는데 경찰서원을 동원시키지 말고 내가 주장한 시의원으로서 신중히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

◇정 응 표 의원

- 산업과에서 주는 배급상황을 보면 세공민을 선발하여 중점 배급을 해 놓고 동에서는 균일 배급을 하고 있으며, 배급 사정하는 데도 전적 동장에 일임하고 있는데 죽교동 모구 거반 천주교회에서 구호 물자를 배급하는데 그

후 실시 조사를 하여 본즉 전원 여유가 있는 자에게 배당이 많이 되어 있으며, 이런 점도 유의해서 동장이나 서기에게만 일임해서는 안된다.

◇김 삼 성 의원

- 변방에 사는 세궁민과 중심지에 사는 세궁민의 생활정도에 차이가 있으니 통장제로 실시하게 되면 이점도 참작해 주기 바람

◇진 복 춘 의원

- 통장제를 실시하면 세궁민이 전부 통장을 가지게 되는가? 그리고 5인분을 받아 2, 3세대가 나눠 먹는 것은 절대 동장의 실정에서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시장 하 동 현

- 전부 통장을 줄 수 없다.
- 과부라든가, 노동력이 없는 자 등 5, 6가지 규격을 정하여 추려낼 수 있다.

◇의장 유 정 두

- 실시 일자는 언제부터 할 것인가?

◇김 영 완 의원

- 금월 18일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결정하겠음
- 재석의원 17명 전원 가결

◇임 일 남 의원

- 거반 동정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있어 잡부금을 부과치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교동에서는 국체소화 독려시 비용이라 하여 날파하고 있다는데 여하한 대책이 서 있는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기 바람

◇김 영 완 의원

- 영해동에서는 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5만원, 3만원, 10만원을 각출한 사실이 있다해서 현지에 가보았는데 아무런 영수증도 주지 않고 받아간 사실이 있으니 행정당국에서 여사한 일을 알고 있는지 모르나 조속히 조사해서 어느 정도 각출되었는지, 또한 장부상 기록 되었는지 조사해 주기 바람.

◇정 응 표 의원

- 배급 실시시 잡부금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 박 시장 때 행정당국에 요청도 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다. 차후 이런 일이 없게 해 달라.

◇총무과장 조 운 용

- 곧 조사에 착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복 주 의원

- 아직까지 완전한 법인단체가 아니고 주주모집 방법도 미지수이니 목포 청과물 주식회사에 대항할 것만 오늘 결의하고 회사가 설립되고 4, 5일 이내에 법인 등기(김남진 위원 제의 수락)가 끝난 후 계약 체결할 것을 개의(재청)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결정하겠음.
- 재석의원 16명 중 가 15, 기 1가결

◎ 예산 초과금 지출에 관한 건(교위)

◇의장 유 정 두

- 본 건은 발의할 성질이 못되므로 각하 하겠음.
- 지금부터 비밀회의로 들어가겠음.

※ 비밀회의 약 1시간 40분(생략)

◇의장 유 정 두

- 회의록 서명에 김삼성, 명남철 의원을 지명

10. 폐회선언

의장

(오후)

11. 폐회식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4286(1953)년 2월 13일

의장 : 유 정 두

의원 : 김 삼 성

” : 명 남 철

작성자 서기 : 천 세 봉

제14회 목포시의회 속기록

◇의장 유 정 두

- 목포시 의회가 자치제 실시후 9개월간 완전한 기초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제2단계로써 재건사업에 들어가 삼학도 매축공사를 위하여 시장님은 물론 우리 21명의 시의회에서도 민의를 반영, 중앙요로에 실정을 그대로, 또는 정식으로 보고 교섭하고 있는 결과로 다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것의 증거로써 상부한 이재홍 의원의 전보에 의하면 운크라 신년도 예산에 계산키로 하고 오는 25일 운크라에서 스겐씨를 위시로 현지를 답사하게 되었는데 내전에 의하여 앞으로 별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운크라의 자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부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자금을 가져가려고 인천항을 비롯하여 군산, 여수, 장항 등의 부단의 교섭이 있다고 생각되오며, 우리로서는 커다란 사명이 놓여 있음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줄로 생각합니다.

- 그리고 오늘은 우리 목포시의 건설사업인 청과물 도매시장을 포함한 기타 안건 등등 신중히 토의하시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서기 박 찬 대

- 제13회 임시회의 회의록 낭독하였음

◇의장 유 정 두

-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그대로 전원 통과되었습니다.

◇서기 박 찬 대

- 제5, 6차 산업분과위원회 회의록 보고

◇의장 유 정 두

- 이의 없기로 전원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 동목포역 설치 추진상황보고

◇시장 하 동 현

- 동목포역 설치에 있어서는 과반 중등, 고등, 대학생의 근로동원을 하였던 결과 별성과를 보지 못하고 또한 허다한 애로가 있음에 그대로 그만두고 방공단에서 이를 청부식으로 이달 18일부터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본 안전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신임 남기인 건설과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실 것입니다. 남 과장은 행정부에 20년간의 경험과 또한 도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모셔 갈려고 하였으나 결국은 우리 목포시청으로 모셔 왔습니다.

-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남 기 인

- 금반 당시 건설과장으로 취임한 남기인 올시다.

- 앞으로 의결부인 의회와 행정부의 집행부 일치하에, 또는 긴밀한 연락하에 일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미력이나마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의장 유 정 두

- 지금부터 본 안전에 들어 가겠습니다.

- 청과물 도매시장에 관하여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원칙적으로 청과물 도매시장이란 우리 목포시민의 복리를 위한 것이오니 우리시 자치로 운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관계로 회사에 일임하게 되는데 주식회사에서 산업분과위원회하고 계약서를 신중히 검토하여 이대로 할 것인가, 또는 수정을 요할 것인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주식회사 자체가 아직까지 법인등기가 나지 않았으므로 곤란한 점이 있고 원칙적으로 회사측에서는 수수료만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안될 일이며, 회사가 제도에만 섰다면 의회에 다소의 보조라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그렇지 못한 형편이며, 또한 우리 의원 중 김영완 의원은 물론이러니와 기타 의원중에서도 회사 중역으로 취임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본다면 제3조에 있어서 다소의 의문이 있으니 신중토의(계약서에 의하여 내용은 생략함)

하여 주십시오.

- 그리고 도매시장의 총수입은 연(예측) 1억5천만원 정도라 하는데 거기에 수수료 8할과 기타 계산한다면 연 시수입은 5천만원 정도나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본다면 만 2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의 시세 변동과 기타 여러 가지의 조건에 의하여 회사 자체가 이익이 없을 때, 이러한 수수료를 지불하고도 회사가 운영될 것인가를 생각한 바 있으므로 계약의 기간을 1년 정도로 단축시 수시 계약을 체결함이 어떠한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 총수입이 1억 5천만원정도라 하는데 시수입은 3천5백만원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계약을 10년간으로 요구하여 왔는데 이것이 만일 회사측에서 이익이 나서 좋아지면 별문이지만 운영난에 봉착하면 어찌할 것인가 우려되므로 만 2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진 복 춘 의원

- 간사께서 계약서를 꼭 낭독하여 주십시오.

◇의장 유 정 두

- 세부적으로 들어 가서 행정당국에 일임하고 이 계약서의 의하여 회사측에 줄 것인가 토의하여 주십시오.

- 그런데 회사자체가 아직까지 법인단체에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식으로 등기된 후에 계약을 토의하기로 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진 복 춘 의원

- 우리 목포시로써는 못하운 바 청과물 도매시장을 대행시킬 것을 동의합니다.(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이 소 규 위원

- 동의를 가결하기 전에 조항부터 토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중대한 제5조 인건비 합계 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실한 숫자인가, 어떠한 근거에서 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며, 시로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 복 춘 의원

- 아까 내가 말한 대행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토의하여 주십시오.

◇김 삼 성 의원

- 제5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계약서를 본다면 2년간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앞으로 물가 변동에 따라서 운영난에 봉착한다 하면 어찌할 것인가가 우려되므로 기한을 길게 하는 것 보다도 1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 회사 자체가 신발족이므로 제8조의 기한인 2년의 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제8조에 기한이 2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 원래 업자측에서는 10년간의 기한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회사가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회사측간에 계약을 체결기로 하고 회사측의 법인 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며칠이나 걸릴 것인가 물어 봐 주십시오.
- 지금 법인 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앞으로 1개월 가량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행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대로 하고 법인 등기가 완료된 후에 하기로 하고 며칠까지는 등기의 수속을 완료토록 조건부로 하면 어떠할까요?

◇김 남 진 의원

- 회사측에서 수속 완료를 하게 되면 1개월이 걸릴 모양인 바 앞으로 45일간의 기한을 주어서 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고 이 계약에 의하여 이대로 대행시킬 것을 동의합니다.(동시에 재청하는 이 있음)

◇김 영 완 의원

- 준공기를 아사자가 없이 무난히 돌파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사회로 하여금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의 실정을 본다면 피난민 배급이 1만 4천명, 전재민 15,337명, 원주민 9,253명이고 그 밖에 공생원이 904명, 기타를 합하면 56,190명에

달하고 있는데 목포 인구 10만을 잡고 반수 이상이 수배 대상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면을 본다면 아사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은 수배치 못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19반에 거주한다하여 가지고 실지는 다른 동이나 반에 거주하면서 양곡만을 수배하려는 것이 불소하므로 이러한 폐를 없애기 위하여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조절하여 주시기를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러한 모순성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시, 동, 회, 유지 등을 망라하여 확실한 수배 대상자를 조사하도록 하고 거기에는 문교사회분과위원회도 참가할 것을 긴급 동의 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양곡 배급의 모순성을 없애기 위하여 이를 진상조사토록 산업분과 위원회,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 대책 등을 일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할까? (재청이오 하는 이 있음)

◇이 복 주 의원

- 우리가 매일 보다시피 목포시민의 경제상태를 본다면 곤란은 물론이요, 현재에는 시내의 공장 등지가 휴업상태이고 시민의 경제는 날로 심각하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신중히 토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 삼 성 의원

- 양곡수배대상자 조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의원들이 자기 출신 구역을 담다야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되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소 규 의원

- 양곡 배급에 있어서는 다소 정실 배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하여서 시장님의 대책은 없습니까?

◇시장 하 동 현

- 앞으로는 통장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동장, 반장의 확실한 보고에 의하여 일정한 통장제도를 실시하 계획입니다.

◇임 일 남 의원

- 요즘 시에서 세궁민 식량배급에 있어서는 그대로 반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배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대단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러한 점은 수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 요즘 듣기에 5인분의 식량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금 30만원만 주라는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적은 못하지만 이러한 사실 등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김 영 완 의원

- 하 시장님은 민치행정에 합치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 요즘 각종 징수사무에 있어서 경찰관을 동원하는 예가 있는 모양인데 과거나 현재나 일반 민간이 경찰을 동원한다 함은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정 응 표 의원

- 죽교동 4구의 예를 본다면 배급이 나오면 세궁민이나 부유층이나 전부 총망라하여 나눠먹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배급방법은 원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김 삼 성 의원

- 통자제를 실시하게 되면 중심지 세궁민과 산정동 1구동과 2구동등에 비하여 본다면 같은 세궁민이라 할지라도 차이가 심하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실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진 복 춘 의원

- 그런데 세궁민이 상당한 숫자인데 이 세궁민에 대하여서 전부 통장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하 동 현

- 전 시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든다면 규칙에 의거하여 5, 6가지의 규칙에 해당될 때 통장을 발행하 계획입니다.

◇의장 유 정 두

- 그렇다면 본 건은 출신구를 의원들이 담당하여 조사하여 가지고 1월 18일부터 2월 15일까지 사무당국에 제출하도록 할 것에 대해 가부를 묻겠습니다.

◇임 일 남 의원

- 전반에 동정예산이 통과되면 동의 잡부금은 일체 없기로 하고 통과시켰는데 요즘 일부 동에서는 국채소화 당시의 비용이라 하여 걷는 모양인데 동정세의 통과 원인에 배반되므로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김 영 완 의원

- 방금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동정세를 통과하면 일체부과가 없다고 말하였는데 요즘 모동의 예를 본다면 5만원 내지 10만원씩을 징수하는 모양으로 돈을 낸 사람들에게 물어본즉 영수증도 없고 고지서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조사하여 주십시오.

◇이 복 주 의원

- 청과물 도매시장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에다가 준다는 것만 결의하고 상세한 계약은 회사가 완전히 법인 등기가(자료누락)